

02
SPECIAL CHAPTER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예술의전당 최고의 연극 시리즈 II

유리 부투소프의 <갈매기>

2008. 11. 7(금) - 11. 23(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안톤 체홉의 <갈매기>가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최고의 연극 시리즈 II'로 찾아온다.
연출을 맡은 '유리 부투소프', 시각적, 공간적인 디자인을 책임지는 '알렉산드르 쉬시킨', 움직임과 안무를 맡고 있는 '니콜라이 레우토프' 3인방은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예술가다.



А. П. Чехов
ЧАЙКА

The Sea-gull. By Yuri Butusov

유리 부투소프의

갈매기

The Seagull. By. Yury Butusov

러시아 희곡 작가 안톤 체홉(1860-1904)의 '갈매기(1896)'는 현대 관객들에게는 이제 그리 낯설지 않다.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과 희곡은 1920년대부터 늘 무대 위에서 우리들의 시대적 정서를 자극해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내 연출가들을 비롯해 러시아 유명 연출가인 '그리고리 지차트콥스키'와 '카마 긴카스'가 한국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특히 2004년에 예술의전당이 기획한 그리고리 지차트콥스키 연출의 <갈매기>는 '2004 올해의 예술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체홉이 가진 예술세계를 잘 표현해 관객과 평론가에게 호평 받았다. 또한 배우나 제작진도 체홉이 가진 연극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연극사에 더욱 의미 있었던 작품이었다.

<보이체크>로 이미 한국에 잘 알려진 연출가 유리 부투소프의 연출로 <갈매기>가 오는 11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다시 날아오른다. 관객들은 이제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와 '갈매기'라는 희곡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과 표현 언어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갈매기>를 기다리는 것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와 유럽도 마찬가지다. 연출을 맡은 '유리 부투소프', 시각적, 공간적인 디자인을 책임지는 '알렉산드르 쉬시킨', 움직임과 안무를 맡고 있는 '니콜라이 레우토프'. 이들 3인방은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가장 주목 받는 젊은 예술가다. 이들이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배우, 스태프들과 어떠한 형식과 새로운 표현세계를 추구하면서 <갈매기>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유리 부투소프는 최근 몇 년 동안 셰익스피어의 작품만을 해왔다. <헨릿>, <리어왕>, <리처드 3세>, <로미오와 줄리엣> 등 샤프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모스크바와 북유럽 국가에서 그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연출가로 인정받았다. 그런 그에게 <갈매기>는 체홉의 새로운 형식과 언어를 발견하기 위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셰익스피어 세계의 연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갈매기>의 극 구조와 인물 설정, 인물 성격 등 작품의 여러 가지 요소를 잘 살펴보면 셰익스피어 '헨릿'의 모티브와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2003년, 유리 부투소프 연출의 <보이체크>와 2004년 한태숙 연출의 <꿈추 리처드 3세>라

는 작품으로 한국 무대를 경험한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쉬시킨은 무대장치 디자인뿐만 아니라 의상, 소품, 조명 등의 분야까지 작품의 시각적, 공간적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창작해내는 '시노그래퍼'다. 그는 작년에 러시아의 연출가 안드레이 마구치와 고골(1809-1852)의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키포로비치와 싸운 일'이라는 단편소설을 <이반들>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하여 러시아 공연예술상 중 최고상인 '황금 마스크상'에서 최고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하는 등 러시아와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 디자인의 콘셉트는 극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시각적, 공간적, 색감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무대이며 극중인물인 젊은 예술가 '트레플레프'의 정신세계를 중심으로 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남명렬, 이호성, 정재은, 장우진, 정수영, 김태우, 김경익, 김소희, 박명신, 홍승균 등은 지난 여름 연출가가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하고 선정한 실력과 배우들이다. 남명렬, 정재은, 이호성은 2004년 예술의전당 기획 <갈매기>에도 참여하여 관객들로부터 좋은 연기를 인정받았으며 남명렬은 2003년 예술의전당 기획 <보이체크>에서 유리 부투소프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얼굴 없는 미녀', '기담', '도쿄 여우비' 등으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김태우가 극 중의 중심인물인 트레플레프역을 맡고 상대역인 니나로는 뮤지컬배우로 활동하면서 TV 드라마 '환상의 커플', '김치 치즈 스마일' 등에서 신선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정수영이 맡았다. 또한 연습실에 실제 크기의 연습용 무대장치와 소품, 의상 등을 설치하여 소리, 공간, 움직임 등의 섬세한 표현 언어에 배우와 연출, 제작진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다.

근대 리얼리즘 연극의 최고 명작으로 세계 연극인들의 관심 속에 예술의전당 20주년 기념 최고의 연극으로 탄생할 <갈매기>는 우리나라 연극사에 또 하나의 전통으로 기록될 것이며 연극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2008년 가을, 진한 감동과 함께 상징과 은유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보자.

02
SPECIAL CHAPTER

독창적인
무대 언어를 찾아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쉬시킨 인터뷰



Scenographer

Alexander Stekin

표현 언어와 색채가 강렬한 현대연극이 될 것

min
CARPENTER BLO
MARINE BLUE 033

New Interpretation The Seagull's Designer

2003년에 <보이체크>라는 작품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연했는데 다시 한국을 찾은 소감은요?

한국 관객들과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무척 설렙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리 부투소프 연출의 <갈매기>는 체홉의 또 다른 언어를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초연작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복잡한 제작과정이 요구됩니다.

러시아 출신의 시노그래퍼(Scenographer, 무대, 의상, 소품, 조명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진행하는 상위개념의 용어)로서 체홉의 작품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요?

수많은 천재적 연출가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체홉의 <갈매기>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인간 감정의 깊고 넓은 은유와 상징의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체홉의 작품을 오늘날 무대에 형상화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무대 디자이너로서 행복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홉의 색깔을 오늘날의 새로운 형식과 언어로 날개를 달아서 움직임을 창조하고, 그것을 관객들이 직접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준비하며 연출가 유리 부투소프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는 점이 있을까요?

체홉의 <갈매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공연하고 있고 예술성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갈매기>가 어떠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소개되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무대 표현 기호와 언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 연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표현 언어와 색채가 강렬한 현대연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노그래퍼로서 작품을 디자인할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한국과 러시아에서의 작업과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보는 것도 항상 새롭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제작과정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작업을 세분화하여 디자이너들이 독립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작품에서 무대, 의상, 조명, 소품, 분장 등의 디자이너가 각각 독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공연단체의 성격이나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역할과 구성이 분야별로 정해지기도 할

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이너 한 명이 전체적인 것을 디자인할 때 형식이 더욱 잘 통일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작품의 고유성을 개발하고 현실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출가 유리 부투소프에 대하여 소개해주세요.

유리 부투소프는 저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작품을 같이 해 온 좋은 동료이며 그와의 작업은 늘 흥미롭습니다. 그는 작업할 때 굉장히 섬세한 감정까지도 잘 느끼며 시적이고 미학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작품의 정신적인 세계와 철학에 대하여 깊이 있게 집중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무대표현 예술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연출가입니다.

디자이너가 원래 꿈이었나요?

러시아에는 '쉬시킨'이라는 미술의 대가(大家)가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어릴 때부터 유명한 미술가가 될 것이라고 주변사람들이 이야기했었고 어머니는 저를 예술가로 키우시려고 극장과 미술관, 박물관, 그림 스튜디오를 자주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미술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도 미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졸업 다녔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작품이나 작업이 있습니까?

더욱 더 새로운 무대 언어를 개발하고 싶고 총체적인 표현작업,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2007년 러시아에서 작곡가 알렉 크 니콜라예비치 크라바이추크와 함께 <피아노와 디자이너를 위한 콘서트>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이지만 출연자로 나서서 디자인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영상기를 이용하여 라이브 연주에 맞추어 무대 전체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세계를 더욱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저도 긴장된 라이브가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마치 연주를 하듯 즉흥적으로 공연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나가고 그려가는 표현세계는 '나를 무대 위에서 살아있게 하는 작업'이고 '나의 손길이 살아 숨쉬는 작업'이기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글 _ 김중원 (협력연출, 경남대 교수)
photo© 예술의전당 홍보출판팀 사진실